

## 제53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존경하는 이상훈 재향군인회장과 군 원로 여러분,

6·25 참전용사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오신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6·25전쟁 53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유엔군 장병 여러분의 명복을 머리 숙여 비는 바입니다. 그때의 상흔으로 아직까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과 전몰장병 유가족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전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은 바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글귀를 보고 지구 반대편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찾게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 생각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었을 것입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불굴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다 가기도 전에 공산주의는 패퇴하였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군 참전용사,

그리고 UN군 참전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2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튼튼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왔습니다. 이제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해외에 나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이처럼 값진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의 참여정부가 가능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참전용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재앙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물론 힘 없는 여성과 무고한 어린이들의 희생도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토는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

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6·25전쟁은 결코 '잊혀진 전쟁'이 될 수 없습니다. 평화는 그것을 지킬 힘이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러시아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협력도 구할 것입니다. G8 정상과 EU 각국 등 국제사회도 북핵 불용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의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하지 말 것'과 '평화적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모래부터 금강산 해로관광이 재개되고 7차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6월 15일은 남북정상회담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공동선언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의선 철도를 타고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달리게 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 속에 대북 '평화 변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공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 속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정의를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참전용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해외에서 오신 분들 모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